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11주년 기념 직원 등반대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8일 개원 11주년을 맞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심학산에서 ‘개원 11주년 기념 동국대학교병원 가을 등반대회’를 실시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등반에 참여한 의료원장과 전교직원들은 약천사를 참배하고 심학산 정상에 올랐다. 직원들은 등반을 하며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병원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등반 후 2부 행사로 레크레이션과 팀별 미션, 행운권 추첨 및 게임 등을 통해 큰 호응과 재미를 더했다. 전 직원이 팀별로 구성된 코스별 미션사진 찍기 콘테스트에서는 특별상, 웃음상, 재미상, 감동상, 산악왕상을 시상했으며 부상으로 각각 현금 20만 원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로 교직원들은 직장을 벗어나 심신을 단련시키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02 ‘한방으로 더 건강하게’ 한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원 1층 로비에서 ‘한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한방의 날 행사는 한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한방으로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한약재 및 보양제 전시 ▲한방 홍보 동영상 상영 ▲한방 궁중 차 서비스 ▲머리가 좋아지는 총명단 만들기 ▲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향낭 만들기 등 다양한 한방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료취약계층을 한방병원으로 초청해 각 진료과에서 한방치료를 펼친 반면 올해에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고양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직접 방문 진료를 펼쳤다. 11일과 13일 양일간 실시된 방문 진료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상비약으로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소도환, 청간환, 경옥단, 청심원 등으로 구성된 한방상비약 세트를 준비하였으며, 간단한 문진과 진맥을 통해 침 치료를 펼쳤다.



03 치매예방관리 및 파킨슨 병 원내 건강강좌 개최

지난 10월 11일 치매예방 및 파킨슨병에 대한 건강강좌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좌는 지역주민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신경과 김광기 교수, 박정기 교수,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가 각 각의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양·한방 통합강좌로 실시된 치매 예방관리 강좌에서 김광기 교수와 구병수 교수는 치매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가 함께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치매 원인으로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꼽았으며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노년기의 뇌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기 교수는 파킨슨병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증상으로 떨림증, 경직, 자세 불안정을 예로 들었으며 임상적 진단과 파킨슨병의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치료방법으로 수술적 치료와 약물 치료, 비침습적 치료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질환에 대한 예방법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4 전교직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감염관리실에서는 독감 유행에 앞서 직원과 환자, 내원객의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감염이 될 경우 발열, 기침, 두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함께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쇠약감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합병증으로는 세균성 폐렴,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부전증, 천식,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켜 심각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들은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건강한 젊은 사람의 경우 약 70~80%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예방접종 후에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드물게 나타나며 대개 6~12시간 이내에 발생해서 1~2일 정도 지속될 수 있다.

05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최근 병·의원들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명한 의사를 이용하여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대리 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무기록실은 동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에 맞춰 개정하고 수술 의사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설명내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이라도 그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알 리 미

원내 건강강좌

주제: 뇌졸중 | 강사: 신경과 류위선 교수, 신경외과 김병철 교수, 재활의학과 남기연 교수
일시: 10월 20일(목) 10시 | 장소: 본원 5층 대강당